

블랑팡 고펜싸 V

“지중해 행성(Planet Mediterranean)” 원정을 후원하다

로랑 발레스타와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는 블랑팡은 7 월 프랑스 해안가와 연결되는 지중해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원정 미션인 5 번째 고펜싸 원정을 후원한다. 이번 탐험에서는 처음으로 포화 잠수(saturation diving)와 완전 폐쇄식 재호흡기(closed circuit rebreathers)의 조합이 시도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지중해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이 원정의 목적이다.

로랑 발레스타는 해양 생물학자이자 유명한 심해 포토그래퍼, 그리고 혁신적인 다이빙 장비 사용에 있어 단연 앞서 나가는 선구자다. 2012 년 이래 블랑팡의 후원 덕분에 그는 여전히 접근이 힘들어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 심해 생태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한 고펜싸 원정 프로젝트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레위니옹 섬(Reunion Island), 필리핀, 폴리네시아 미션과 더불어 4 번의 원정이 진행되었다. 로랑 발레스타는 전 세계 *블랑팡 오션 커밋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BOC)*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각 고펜싸 원정은 과학적 신비, 도전적인 잠수, 전례 없는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고펜싸 V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연구 센터로부터 주어지는 일련의 과학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심해 생태계의 모습을 포착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펜싸 팀은 세계 최초로 포화 다이빙, 그리고 완전 폐쇄식 재호흡기를 사용하는 스쿠버를 조화시켰다. 포화 다이빙은 전문 잠수부에게 호흡 가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줄로 표면과 연결된 상태에서 잠수부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적으로는 잠수부가 물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작업 가능한 지역 주변 몇 m 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반경의 제약이 있다.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 스쿠버 다이빙은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실제로 심해에서 몇 분만 있어도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몇 시간의 감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법을 조합함으로써 처음으로 원정 동안 감압할 필요가 없어졌고, 미션 말미까지 4 일간의 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로랑 발레스타와 세 명의 팀원은 하루에 8 시간 가까이 원정 여정을 소화하며 그들의 야심 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전에 진행된 원정과 마찬가지로 고펜싸 V 는 다큐멘터리 영상, 전시, 그리고 책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2020 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로랑 발레스타 팀이 발견한 것들이 공개된다. 기후 변화와 멸종종 발생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산재한 이 때 원래의 모습이 보존된 풍성하고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아래에서 블랑팡이 후원하는 원정 관련 영상 블로그를 팔로우할 수 있다.

<https://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gombessa-v>